

환경 학습의 명소 캐니빌리지

자원 재활용과 환경의 소중함, 직접 몸으로 느껴



윤 석 만

(사)한국금속캔자원협회 회장

금속캔을 재활용 했을 때 가장 큰 효과는 우선 환경적인 측면이다.

철강재를 새로 생산할 때에 비해 이산화탄소 82%, 질소 산화물 88.9%, 황산화물 74.7%의 저감효과가 있고 에너지는 무려 68.5%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알루미늄 1kg을 재활용 했을 경우 무려 1,083시간을 켤 수 있는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어린이를 주관람 대상으로 개관한 환경전시관 '캐니빌리지'가 환경교육의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홍보 전시관인 소재인 '캔(can)'을 어린이들이 좋아하고 부르기 쉽도록 명명한 것으로 홍보전시관의 캐릭터의 이름이기도 한 캐니(canny)와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뜻을 가진 빌리지(village)를 더해 이름붙인 이 박물관은



▲ 1층에 위치한 영상실



▲ 성남시 분당구 석운동에 위치한 캐니빌리지

(사)한국금속캔자원협회(회장 윤석만)가 지난 해 5월 105억원의 건립 비용을 들인 '금속캔 재활용 홍보전시관'이다.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캐니빌리지는 3층 건물 570여평의 전시면적에 건립됐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타겟으로 하여 내용을 구성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문화시설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이 전시관은 1층에는 영상홀과 환경관련 서적이 비치된 환경도서실이 마련돼 있다.

영상홀에서는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이동용 애니메이션이 상영된다.

2층에는 '캐니 마트', '캐니의 집', '캐니극장' 등 생활 속에서 금속 캔 재활용을 체험하며 분리수거 등 환경보전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주인공 캐니가 사는 집, 식당, 슈퍼마켓 등에서 어린이들이 캔을 구입하고 사용한 빈 캔을 재활용하는 방법을 배운다. 어린이 관람객은 상점에서 구입한 캔 재활용에 성공하면 상품으로 코인을 얻

어 컴퓨터 게임도 할 수 있다.

3층에는 병사들이 먹을 음식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 고민했던 나폴레옹, 캔을 발명한 영국인 듀란드 등 캔의 역사를 배우는 공간이 꾸며져 있다.

특히 각 층마다 운영위원 및 도우미들이 배치돼 신속하게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구성, 어린이 관람객들을 인솔하고 있다.

어린이들로 하여금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 체험하면서 과학을 이용한 캔의 제조과정

CANNY VILLAGE



▲ 영상물을 통해 분리수거 방법을 배우고 있는 어린이 관람객들



▲ 캐니빌리지는 체험위주의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있다.

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캐니빌리지는 그 주 대상인 아이들에게 캔 제품에 대한 이해와 재활용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기자가 방문한 날 전시관 견학을 함께 했던 희소에듀케어스쿨(용인시 죽전에 위치), 한나미술학원(안양시 평촌에 위치) 교사들은 하나같이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흥미 위주의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하고 좋아한다”며 “기회가 된다면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반영하듯이 이 날 전시관을 방문했던 5~6세 어린이들은 프로그램 하나하나 눈을 떼지 못할 정도로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그림자를 이용한 분리수거 게임 및 캔 재활용에 성공하여 코인을 얻은 컴퓨터 게임 등에 큰 관심

을 보이며 즐거워했다.

현재 캐니빌리지는 개관 8개월만인 지난 1월 관람객 10만명을 돌파, 하루 평균 500여명이 관람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원재활용

에 관한 홍보교육시설이 더러있긴 하지만,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전시시설을 배치하고 체험 위주로 만들어진 재활용 전문전시관은 캐니빌리지가 처음인데, 그 인기를 반영하듯 현재 예약이 넘쳐나

고 있다.

캐니빌리지를 운영하는 한국금속캔자원협회는 단순히 캔을 재활용 하는 것을 넘어서 자원으로 바꾸자는 일환으로 기존의 금속캔재활용협회에서 지난 1월 명칭을 변경했다. 한국금속캔자원협회 홍보팀 노민웅 씨는 “앞으로 협회는 금속캔의 가치를 알리는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으로 이와 관련된 테스트포스팀을 구성할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미래 사회 주역인 어린이들이 캔 제품에 대한 이해와 재활용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캐니빌리지 전시관도 꾸준히 활성화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자원 재활용과 환경의 소중함을 직접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캐니빌리지 관람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할 수 있으며, 판교 한국학중앙연구원(구 정신문화연구원)앞 버스정류장에서 30분 간격으로 셔틀버스가 운행된다.

입장은 무료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관람문의: 031-706-2915). 

이한얼 기자



▲ 캐니마트에서 소비활동을 통해 재활용 교육을 배우는 아이들



▲ 어린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았던 컴퓨터 게임